594명 탄자니아 농업인재 배출…교육으로 일군 10년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① 아프리카에 심은 자비의 씨앗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16년 9월 5일 열린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개교식에서 조계종 대표단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16년 개교 당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전경.

아름다운동행, '자립'에 초점 맞춰
동봉 스님 부지 지원 · 모연 이어
2013년 다르에스살람 외곽 첫 삽

2016년 개교…신입생 57명 입학
이론 · 실습 新 농업 모델 구축
지역사회 발전 기여 구조 만들어


자승 스님은 개교식 참석 후 인근 마을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격려했다.

2013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주 키캄보니 무와송가 마을.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충분하지 않았던 이곳에 한국불교가 '학교를 세우겠다'고 발원했다.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우물을 파는 구호를 넘어 교육을 통해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2013년 첫 삽을 뜬 사업은 3여 년의 건립 과정을 거쳐 2016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Borigaram Agriculture Technical College, 이하 보리가람대학) 개교로 이어졌다. 교실과 도서관, 기숙사, 농축산 실습장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이 문을 연 것이다. 첫 신입생 57명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10년.

지난 8월 22일 제8회 졸업식을 통해 64명이 학업을 마치면서 보리가람대학은 모두 594명의 농업 전문인력을 배출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보리가람대학 건립의 출발점에는 해외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이었던 자승 스님은 아프리카 지원의 방향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자립'에 뒀다.

그리고 찾은 답은 교육이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에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현지 청년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 학교 건립은 농업기술교육을 통해 현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구체화됐다.

현지와 한국의 원력이 함께 모였다.

동봉 스님은 학교 건립을 위해 현지 부지를 기증했고,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모연을 진행했다. 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선서화전과 바자회, 후원의 밤, 저금통 캠페인 등 크고 작은 모금운동이 진행됐다.

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교육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강의와 실습이 가능한 건물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생활할 공간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했다. 특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도로조차 부족한 지역이었던 만큼 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야 했다.

보리가람대학이 들어선 부지는 10만9821㎡(약 3만3200평)에 달했다. 연건평 3424㎡(약 1035평)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으며 강의동과 도서관, 강당, 기숙사, 교사 관사 등이 들어섰다. 농업·축산 실습장도 마련해 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허허벌판과 다름없던 부지가 교육기관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3년간의 준비 끝에 2016년 9월 5일 보리가람대학이 문을 열었다. 3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출발한 보리가람대학은 원예학을 비롯해 육종학, 식물생리학 등 농업 관련 이론과 실습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농업기술에만 머물지 않았다. 학생들이 졸업 이후 실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학, 정보통신학, 마케팅 등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농사를 잘 짓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이해하고 생산물을 시장에 연결하며 자신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이름에도 건립 취지가 담겼다.

'보리(菩提)'는 부처님의 지혜, '가람'은 사찰을 뜻하는 말로 '보리가람'은 참된 깨달음과 지혜를 실천하는 도량,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보리가람'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스스로의 즐거움을 가족과 이웃,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밝은 날을 열어가길 바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보리가람대학이 자리한 마을은 주민의 90% 이상이 무슬림과 가톨릭 신자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학교는 특정 종교 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종교와 관계없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문을 열었다. 불교계가 설립한 학교이지만 교육을 통한 자립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리가람대학의 교육은 교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졸업생들은 지역 농장과 농업 관련 기관, 창업 현장 등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단순히 취업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며 새로운 농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리가람대학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넓혀왔다. 외부에서 계속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온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강조돼 왔다. 보리가람대학 역시 같은 철학 위에서 운영돼 왔기에 올해 개교 1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다.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서 실천해 온 자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현대불교신문은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을 통해 2016년 개교 순간부터 2026년 제8회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보리가람대학의 10년을 짚어본다. 건립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부터 594명 졸업생의 현재, 학교가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보리가람의 지난 10년과 다음 10년을 6회에 걸쳐 조명할 계획이다.

8월 22일 8회 졸업식

"탄자니아 미래 이끌 인재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8월 22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제8회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64명의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이로써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개교 이후 총 594명의 농업 전문 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배운 것을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탄자니아의 발전을 위해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석 졸업생 하미두 H. 음퀴주(HAMIDU H. MKWIZU)는 졸업 소감을 통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건립해 준 조계종과 한국어를 가르쳐 준 세종학당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공연도 이어졌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댄스동아리 학생들이 축하 무대를 선보였으며, 보리수아동센터 천진불들은 한국과 탄자니아 동요를 부르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은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 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보리수 장학금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 및 동참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서 가능하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한눈에 보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2013년
- 1월 아프리카 학교 건립 발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발표.
- 4~5월 부지 확보 및 조계종 차원의 아프리카 학교 건립 모금 활동 본격화.
- 9월 기공식 열고 현지서 첫 삽. 지부 설립하고 지역개발 등 국제 사업 시작.

2014년
- 3월 탄자니아 초등학교 영양급식 지원사업 'HAPPY CORN' 시작.
- 9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명칭 확정.
- 12월 아름다운동행 후원의 밤, 사찰 · 불자 후원 동참하며 불교계 모연 열기 확산.

2015년
- 5~7월 1:1 빈곤 아동 결연사업 시작. 건립사업 마무리.

2016년
- 9월 3년제 농업기술 전문교육 과정 시작. 첫 입학생 57명,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10년의 역사 출발.

2019년
- 1월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더불어저금통 캠페인 시작
- 9월 제1회 졸업식 57명 졸업.

2021년
- 6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2022년
- 4월 졸업생 2명 한국 유학 초청.

2024년
- 11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보리사 및 보리수아동센터 개원.

2026년
- 8월 제8회 졸업식 64명 졸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아동 영양급식 지원

아이들을 지켜주는 한 컵의 옥수수죽 해피콘



10개 초등학교 5,700명 지원

칼슘·비타민 등 영양 섭취

초등학교 출석률 증진

해피콘 후원 바로가기 ▶

문 의 02-737-9595 | 홈페이지 www.dreaminus.org